

ERICA40년사/약학대학/약학부

[ERICA40년사](#) 중 약학대학 - 약학부에 대한 부분입니다.

□

목차

- [1 소개](#)
- [2 약학과 연혁](#)
- [3 학과 재직 교수진\(2019년 4월 기준\)](#)
- [4 주요 특성화 활동](#)

소개

약학과는 학연산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경기 지역의 미래 제약인력 양성 및 생명공학-약학-의학 융·복합 교육, 연구를 통한 바이오 제약분야의 핵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또한 신약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특성화 연구를 추진하고,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기업들과의 산학협력연구를 활성화하여 산업약사 및 연구약사를 양성한다. 이를 위해 약학대학 내에 ‘융·복합신약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약물전달시스템 및 개량 신약을 개발하는 ‘ERICA 약물전달시스템 연구센터’와 지역기업들과의 협력연구를 위한 ‘산업약학 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맞춤형 약료서비스에 부합된 교육, 실무실습 약학 교육 강화에 부합된 교육, 지역적 특성화에 부합된 교육, 학문발전에 따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약학교육 강화에 부합된 교육, 고부가가치 신약개발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부합된 교육을 목표로 학생-중심적인 환경에서 혁신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약학실무, 제약실무 및 신약개발의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유능하고 윤리적인 약학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특히, 임상약학과 산업약학 분야에 초점을 둔 전공교과 및 실무실습을 편성하여 양질의 맞춤형 약료서비스 및 제약관리 능력을 지닌 전문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공동체의 의료 관리 수요를 충족하고 지역 제약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신약개발과 관련된 약물전달시스템 분야의 핵심기술 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약학연구 자료의 진출을 유도하여 국가경쟁력의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약학과 연혁

(약학대학 연혁과 동일)

학과 재직 교수진(2019년 4월 기준)

- [이철훈](#)
 - 직급: 교수
 - 재직기간: 2010~현재
 - 전공분야: 생화학/세포생물학
 - 최종출신학교: 독일 과팅겐 대학교

- 최한곤

- 직급:교수
- 재직기간:2010~현재
- 전공분야:물리약학/산업약학
- 최종출신학교:서울대학교

- 최경식

- 직급:교수
- 재직기간:2012~현재
- 전공분야:임상약학/약국 경영학
- 최종출신학교:미국 콜로라도 대학교

- 류종석

- 직급:교수
- 재직기간:2012~현재
- 전공분야:분자생물학
- 최종출신학교:미국 웨인스테이트 대학교

- 김동욱

- 직급:교수
- 재직기간:2011~현재
- 전공분야:약품 미생물학
- 최종출신학교:KAIST

- 김철영

- 직급:교수
- 재직기간:2012~현재
- 전공분야:생약학
- 최종출신학교:서울대학교

- 임형신

- 직급:교수
- 재직기간:2012~현재
- 전공분야:약물학
- 최종출신학교:서울대학교

- 하정미

- 직급:교수
- 재직기간:2010~현재
- 전공분야:유기화학/의약화학
- 최종출신학교: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

- 유혜현

- 직급:교수
- 재직기간:2010~현재
- 전공분야:약품분석화학
- 최종출신학교:서울대학교

- 배옥남

- 직급:교수
- 재직기간:2011~현재
- 전공분야:예방약학/독성학
- 최종출신학교:서울대학교

- 남태규

- 직급:부교수

- 재직기간:2011~현재
- 전공분야:약품합성학/생유기화학
- 최종출신학교:미국반더빌트 대학교

- 김진기

- 직급:부교수
- 재직기간:2011~현재
- 전공분야:약제학
- 최종출신학교:서울대학교

- 김상성

- 직급:부교수
- 재직기간:2012~현재
- 전공분야:생리학
- 최종출신학교:서울대학교

- 김영미

- 직급:부교수
- 재직기간:2012~현재
- 전공분야:임상약물학/약물치료학
- 최종출신학교:서울대학교

- 정지은

- 직급:조교수
- 재직기간:2018~현재
- 전공분야:임상약학
- 최종출신학교:이화여자대학교

주요 특성화 활동

- 약물남용 예방 캠페인

-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함께 약물남용 예방 캠페인을 벌여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불법 마약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활동을 펼친다.

- 제약공장 견학

- 한미약품 및 한독약품 공장 등의 견학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의 업무 환경을 살펴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